

영상으로 만나는 사회적경제

<The Mutual Future; 호혜의 미래>...생생한 영국 혁신사례



영국의 사회혁신 사례들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영상물이 공개되었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콘텐츠 개발 사업의 결과물로 사회혁신연구소 스프레드아이(SPREAD-i)가 기획 및 제작을 담당했다.

지난 수년간 법적, 제도적 지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추진되었지만 자생성을 갖고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지금 한국 사회적경제의 현실이다.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실질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 발 앞선 영국의 사회혁신 사례를 역사적, 문화적, 정책적인 맥락에서 살펴봤다. 현대 세계와 경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협동조합의 의미를 되짚어 보며 애슐리베일의 마을 자가건축(Self-Build)과 브리스톨 공동체 토지신탁 사례, 웨일즈의 커뮤니티 주도 도시재생 사례, 맨체스터에서 시작된 협동조합학교 사례를 통해 유-토피아 같은 토피아, 실현하는 세계의 가능성을 담아냈다.

특히 이번 사업의 결과물은 '호혜의 미래' 주제 아래 다큐 영상, 전문가 인터뷰, 사례 연구보고서 및 텍스트가 결합된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이루어져 처음 사회적경제 개념을 접하는 이들의 이해를 돕도록 구성되었다.

※ 바로가기: <http://academy.sehub.net/>

콘텐츠 목록

자본주의와 그 변형 Capitalist Metamorphosis

(영상) 자본주의 Capitalism

소유란 무엇인가? What is Property?

(영상) 팻 코너티 인터뷰 : 레치워스 가든시티 Letchworth Garden City

(영상) 브리스톨 공동체 토지 신탁 Bristol Community Land Trust

(보고서) 브리스톨 공동체 토지신탁(BCLT) 사례 연구보고서

주류 전략 Being Mainstream

(영상) 협동조합학교 The Co-operative School

(보고서) 영국 협동조합학교 커리큘럼 사례 연구보고서(보완중)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하여 Owning the State

(영상) 에드 마요 인터뷰 : 공공서비스 혁신 Public Service Innovation

(영상) 로치데일 주택 상호조합 RBH, Rochdale Boroughwide Housing

(보고서) 로치데일 상호주택조합(RBH) 사례 연구보고서

(보고서) 웨일즈 정부 공공혁신과 협동조합 정책 사례 연구보고서

Revolutionary Equilibrium 관계의 복원

(영상) 팻 코너티 인터뷰 : 백 투 더 퓨처 Back To The Future

(영상) 애슐리베일 셀프빌드 협동조합 Ashley Vale, Self Builders

(보고서) 애슐리베일 셀프빌드 사례 연구

주요 인터뷰

로빈 머레이 Robin Murray,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객원교수

에드 마요 Ed Mayo, 영국협동조합연합회 대표

스티브 와일러 Steve Wyler, 전 로컬리티 대표

팻 코너티 Pat Conaty, 「전환의 키워드, 회복력」 저자

주관 : 서울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획/제작 : 사회혁신연구소 SPREAD-I

섭외/연구보고서 : 김정원, 임소정

촬영 : 슈에트 필름

글/사진/연출 : 안관수

현대 세계와 경제를 이해하는 눈, 자본주의 안에 공존하는 자본주의 아닌 것

호혜의 미래는 ‘자본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한다. 이 물음에 영국의 혁신가들이 풀어놓는 이야기가 흥미롭다. 로빈 머레이 런던경제경제대학교(LSE) 객원 교수는 ‘자본주의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 어떤 힘의 작동 같은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힘은 다른 여러 힘들과 함께 작동한다.’ 고 강조한다. 자본주의가 지금 이 세계의 전부가 아니며, 일부라는 것이다. **공동체가 토지를 소유하고, 지역의 자산을 공유하는 운동,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동네 선술집을 공유지화 하는 영국의 사례에서 자본주의 안에 공존하는 자본주의 아닌 것에 주목하게 된다.**

토지의 공동체 소유로 주거문제 해법 제시, 레치워스 가든시티

레치워스 가든시티는 런던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인구 3만3천명 규모의 작은 타운이다. 1903년 이곳에 세계 최초의 뉴타운인 가든시티 뉴타운이 건설되었다. 대도시의 과밀과 농촌의 과소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고 양쪽의 장점을 결합해 ‘행복한 주거’를 실현하는 이상적인 자족도시를 건설하게 된 것이다.

토지매입의 직접 주체는 퍼스트가든시티주식회사로 사람들은 저렴한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주택을 구매, 거주할 권리를 얻었다. 임대수익은 모두 레치워스의 개발, 관리에 재투자 되는 구조로 지금의 공동체토지신탁모델의 원형이다. 땅을 자산화하여 공동체 이익에 재투자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가치를 공동체 안에 유지하여 토지분, 개발이익분 만큼 부동산의 시장가격은 낮아지고 자산 수익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역량은 커진다. **부동산의 집합적 소유를 통해 도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것이다.**

질 높은 주거, 그 핵심은 공동체이다. 공동체에 의한 토지 가치의 보유가 전제되고 이를 통한 관계의 복원,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때 토지공동체신탁(CLT)의 진정한 의미가 나타난다고 팻 코너티는 주장한다.

공동체의 힘, 애슬리베일 셀프빌드 협동조합

애슬리베일에 건축용 발판 보관창고 부지가 매물로 나왔다. 부지가 민간업자에게 팔릴 예정이라는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영리개발계획을 반대하는 애슬리베일 액션그룹(AVAG)을 조직하여 셀프빌딩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개성을 살린 저렴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개발로 애슬리베일의 독특한 지역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일련의 과정은 지속가능한 지

역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져 노동자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기업 ‘에코모티브’와 ‘브라이트 그린 퓨처스’가 탄생했다.

개인의 개성을 지키되 개인주의적이지 않고, 도전에 용기를 북돋으며,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안하고, 거시적 안목으로 이웃 공동체를 지원하는 공동체의 힘을 애슬리베일의 셀프빌드 사례에서 목격할 수 있다.

공교육의 혁신, 협동조합학교

“우리는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휴머니즘과 인문학을 바탕으로 창의적이던 학교와 교육은 지금 시험공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영국의 교육현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양극화 심화로 교육격차가 갈수록 커졌다. 2000년대 중반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시민들이 공교육 혁신에 나섰다.

협동조합이 탄생한 곳답게 시민들은 협동조합 방식을 학교로 가져왔다. 2008년 영국 맨체스터 인근의 한 고등학교가 처음 협동조합학교로 전환한 이후 2015년 현재 무려 843개의 영국 공립학교들이 협동조합학교로 바뀌었다. ‘학교협동조합 운동’은 주입식 경쟁교육을 지양하고 함께 하는 지역시민, 창의적인 세계시민을 키우는 혁신 교육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다.

호혜의 미래

영국의 로컬리즘법, 공동체 자산화를 실천에 옮긴 스코틀랜드 토지개혁, 웨일즈 정부, 로치 데일 구청이 때론 수십조에 달하는 주택소유권을 넘기는 것과 같은 영국의 사회혁신 사례는 문제를 비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불평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아이디어라도 실천에 옮기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변화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이 보여주는 변화의 모습과 더불어 서울이 만들어가고 있는 변화 또한 또 다른 새로운 시대상을 그리는데 큰 울림이 되었으면 한다.